

-기

명사형 어미 — 동사를 명사로 바꿈

동작을 말할 수 있는 대상, 즉 명사로 바꿉니다. 만들기 쉽고, 자주 쓰는 여러 고정 패턴의 기초가 됩니다.

■ 결합 방법

상황	형태	예
모든 동사	-기	읽다 → 읽기
ㄴ 어간은 ㄴ 유 지	-기	만들다 → 만들기
쉽다, 어렵다	-기 쉽다 / 어렵다	읽기 쉬워요
~하기 시작하다	-기 시작하다	공부하기 시작했어요
~하기 위해	-기 위해서	건강하기 위해서
시제를 붙이지 않 음	어간에만 붙음	갔기 시작했어요(×)

■ 언제 쓰나요

어간에 -기를 붙이기만 하면 됩니다: 읽기, 쓰기, 만들기. 아무것도 바뀌지 않고, ㄴ도 유지되며, 앞에 시제가 오지 않습니다.

대부분은 단독보다 고정 패턴 안에서 만나게 됩니다: -기 쉽다 / 어렵다(~하기 쉽다/어렵다), -기 시작하다(~하기 시작하다), -기 좋다 / 싫다, -기 위해서(~하기 위해), 그리고 -기 전에입니다. 이 패턴들은 -기만 씁니다.

또한 활동을 추상적으로 가리킬 때도 씁니다. 그래서 언어의 네 가지 기능을 읽기, 쓰기, 듣기, 말하기라고 합니다. 시제를 가진 구체적인 사건을 말할 때는 다음 표현으로 바뀌 씁니다: -는 것.

■ 예문

- 1 한국어는 읽기가 어려워요.
- 2 운동하기 시작했어요.
- 3 이 책은 읽기 쉬워요.
- 4 내일 만나기로 했어요.
- 5 저는 요리하기를 좋아해요.
- 6 자기 전에 이를 닦으세요.

■ 비교

-는 것

-기는 활동을 일반적으로 가리키고, -는 것은 특정한 사건을 가리키며 시제를 가질 수 있습니다. 시간이 정해진 구체적인 사건이라면 -는 것을 쓰세요.

수영하기를 좋아해요. (수영을 좋아한다) / 어제 수영한 것을 후회해요. (어제 수영한 것을 후회한다)

고정 패턴

몇몇 구문은 -기만 허용합니다. 여기에 -는 것을 쓰면 단순히 어색한 정도가 아니라 비문이 됩니다.

읽기 쉬워요 / 자기 전에 / 시작하기 — 읽는 것 쉬워요(×)

-(으)ㄴ

또 다른 명사형 어미로, 격식 있는 글이나 메모에만 씁니다. 활동이 아니라 완료된 사실을 나타냅니다.

회의 참석하기 (회의에 참석하는 일) / 회의에 참석함 (참석했음 — 보고서에 서)

■ 주의

✗ 이 책은 읽는 것 쉬워요.
○ 이 책은 읽기 쉬워요.

쉽다와 어렵다는 -기만 취합니다. 이 패턴에서는 좋다, 싫다, 편하다도 마찬가지로 씁니다.

✗ 작년에 배웠기 시작했어요.
○ 작년에 배우기 시작했어요.

-기는 시제를 가지지 않습니다. 과거는 시작하다에 한 번만 표시합니다.

✗ 그 사람이 온 기를 몰랐어요.
○ 그 사람이 온 것을 몰랐어요.

이미 일어난 구체적인 사건을 가리킬 때는 관형형 + 것을 써야 합니다. -기는 과거형을 가질 수 없습니다.